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425 호 현대불교
2023년 3월 1일(음 2월 10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착을 두지 마시고 모든 걸 자기 주인공에 일임해서 놓으세요

맡겨 놓는다는 것은

질문 유튜브에서 대행 스님의 법문을 듣다 보니 주인공에 맡겨 놓으라고 하시는데 다 놔 버려도 삶을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제대로 맡겨 놓을 수 있도록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여러분이 "다 놓게 되면은, 생활하는 사람이 다 놓게 되면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말씀들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뛰지 않으면서도 뛰는 방법이 있고 뛰면서도 뛰지 않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소에 가서 똥을 눴는데 똥 눈 사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원할 뿐이죠? 일체 생활을 하면서도 벌써 앞발은 떼어 놓지 않았으니깐 없는 것이고 뒷발은 떼어 놓는 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공해서 자기가 했단 말 하나도 할 수 없이 생겼습니다.

매사에 '자기 거다' 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금을 수만 관을 갖다가 쌓아놨다 할지라도 자기는 관리인입니다. 자기 주인의 관리인. 관리인이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주를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게 갈 때에 돈 갖다 주려고 간 게 아니듯이 누구에게 준 게 아닙니다. 물건 사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간 것이고 그 돈 값어치대로 물건을 사오지요. 그건 눈에 보이니까 그 사람 갖다 줬다는 말을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절에 와서 단돈 만 원을 갖다 냈다 할 때도 여러분이 어떠한 스님네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돈 값어치 가져가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갖다 놓은 것만 보였지 가져가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갖다 준 사람도 없는 것이요, 받은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판단을 해 보십시오. 이 도리를 모르신다면 기복으로만 나가서 나중에는 생사에…. 아니, 부처님께서는 선의 인과도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악의 인과도 그렇지마는 만약에 선의 인을 짓는다면 그 선과를 받게 마련이니 선의 인과도 짓지 말라 했습니다. 일등 동물로서 태어나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달마 대사와 양 무제가 말씀하신 그 점을 상세히 생각하시면서 모든 것이 내 내공과 더불어 같이, 삼세심을 같이 들어서 내가 한 생각을 하지 않고 응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량으로 그냥 떨어져서 헛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름해서 주인공이라고, 자기 영원한 생명의 선을 주인공이라고 했으니 주인공에 모든 것을 일임해서 놓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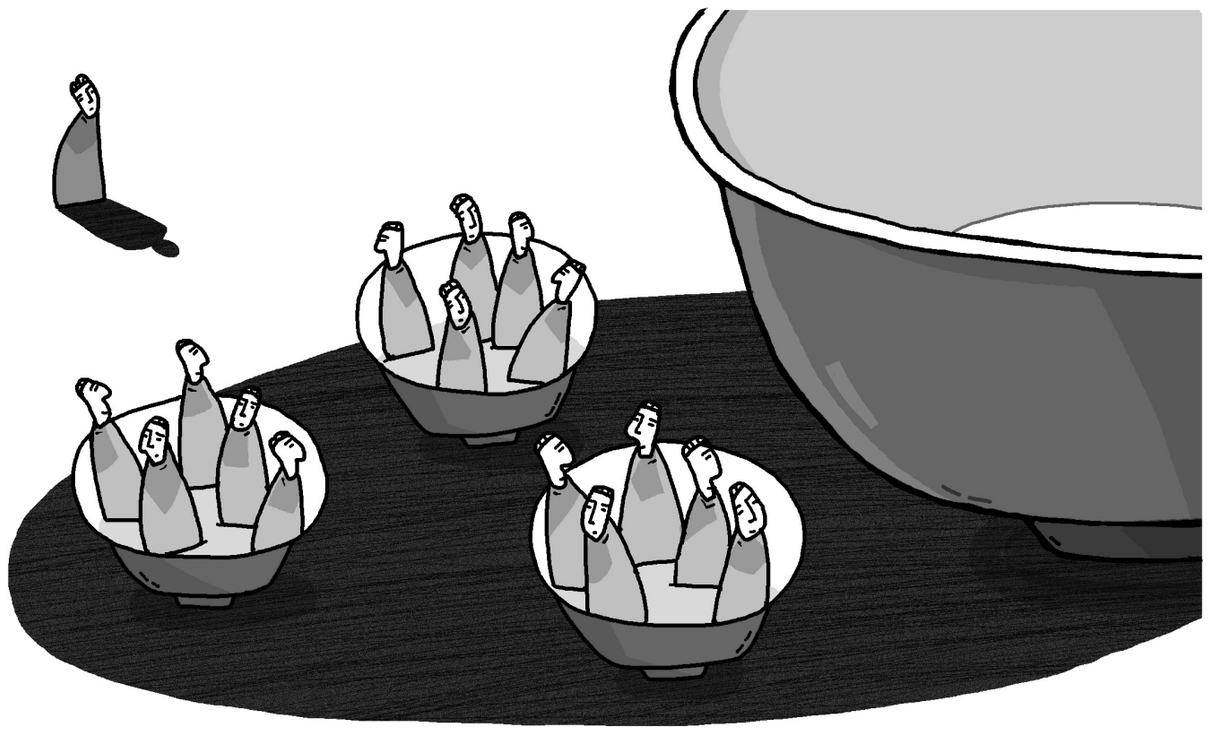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리고 자기 생명 선, 이름해서 주인공인 참자기는 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유생 무생과 더불어 생활하고 돌아가는 진리를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믿어야 합니다. 믿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놓고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돌려서 놓는 것입니다. 끊는 게 아닙니다. 망상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망상이 없으면 부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상도 끊으라는 게 아니라 놓으라는 것입니다. 놓아서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기 때문에 '무(無)' 라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로 "놔라, 공했느니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꼭 거기에다가, 단연코 자기 영원한 생명의 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걸 진짜로 믿고 바로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일임해서 놓으셔야 합니다. 자기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쁜 거든 좋은 거든 흉겨운 거든 기쁜 거든, 모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우주간 법계에서 다 통과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믿고 거기다가 놓으십시오.

사람이 아파서 놓는다 하면 반드시 거기서 의사가 돼 줄 것입니다. 자기의 참자기는 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화할 수 있는 광대무변한 뜻입니다. 빛으로는 빛으로 응하고 음파로는 음파로 통하고 모든 것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그렇게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다 모든 걸 일임해서 놓고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둔다면 바로 자기까지도 내공에 다 놔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건이든지 다 놓으시고 남한테 나쁜 말 하지 마시고, 만약에 자식이 있다면 가정에서도 애들이 공부 안 한다고 공부해라 해라 해서 더 공부를 못 하게 하지 마시고, 착을 두지 마시고 모든 것을 일임해서 자기의 주인공에 놓으십시오. 그러면 스스로 에너지와 같은 그러한 능력은, 바로 그 애한테도 불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연결이 되고 집안에 향내가 아주 그윽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삼라만상 대천세계가 조화가 돼서 돌아가듯이 그렇게 한 가정이 조화가 돼서 화목하게 됨으로써 돈이든 뭐든 모든 게 아마도 구족할 것입니다.

인과에서 벗어나려면

질문 나에게 닥치는 일이 모두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라고 하는데 그러한 인과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그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느 스님이 이렇게 물었죠. "모르는 어린애들은 업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요. 그러면서 "어린애가 세 살 네 살인데 어떻게 업보가 있겠습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모르고 짓는 거는 모르고 받게 마련이고 알고 짓는 거는 알고 받게 마련이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아니냐고, 끼리끼리 모이니까. 지금 현 세상을 잘 보시면 아시듯이, 무쇠전에 무쇠가 모이고, 아니 쌀전에 가 보면 죄 알겠군요. 팥은 팥대로 콩은 콩대로 쌀은 쌀대로 놨죠. 그렇듯이 인간의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잘 쓰면 잘 쓰는 대로 잘 쓰는 사람끼리 모이고, 못 쓰면 못 쓰는 대로 그런 사람끼리 모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잘 쓰고 못 쓰는 건 무슨 영향을 받느냐. 마음을 잘못 쓰면 행도 잘못 나가고 말도 잘못 나가게 됩니다. 신경질을 부리고 말입니다. 안 되고 걸리니까 신경질을 부릴 수밖에. 조건이 걸리지 않는데 왜 신경질이 납니까? 만사가 신경질을 낼 일이 하나도 없는데,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질서대로 그냥 순응해서 무난히 흐르고 있는데. 그 법칙을 따라서 닥쳐오는 대로 놓고, 닥치는 대로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걸릴 게 뭐 있겠습니까?

부자로 만들어 놓고 죽은들 가난한 집안을 두고 죽은들, 그런 걸 염두에 두지 말라 이겁니다. 엽전 한 푼 가지고 있어도, 내 몸뚱이를 이렇게 지니고 있어도, 내 몸뚱이 끌고 갈 수도 없고 엽전 한 푼 끌고 갈 수도 없고, 또 자식들이 근중하다 하지만 자식들이나 부부지간에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알아야 자식도 가족도 조상도 다 서로 가고 옴이 없이 에너지를 서로 나누어서 공생할 수가 있고 공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거는 무심하고 그게 아니라고 우기고 안 된다고 우기고 그럽니다. 그런데 부처님 법이 따로 없다는 그 뜻은, 모든 것에 구애받지 말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디서 하는가. 한자리에서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한자리에 모든 것을 놓고 마음을 잘 쓴다면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무쇠도 녹을 것입

☞ 22면으로 계속

